

한국전통문화전당 '메타버스'로 구현

전주시, 3D공간으로 구현·문화체험 콘텐츠로 구성된 '메타전당' 구축

전통문화의 대중화·산업화·세계화에 앞장 서고 있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의 공간과 콘텐츠가 메타버스로 구현돼 디지털 문화체험이 가능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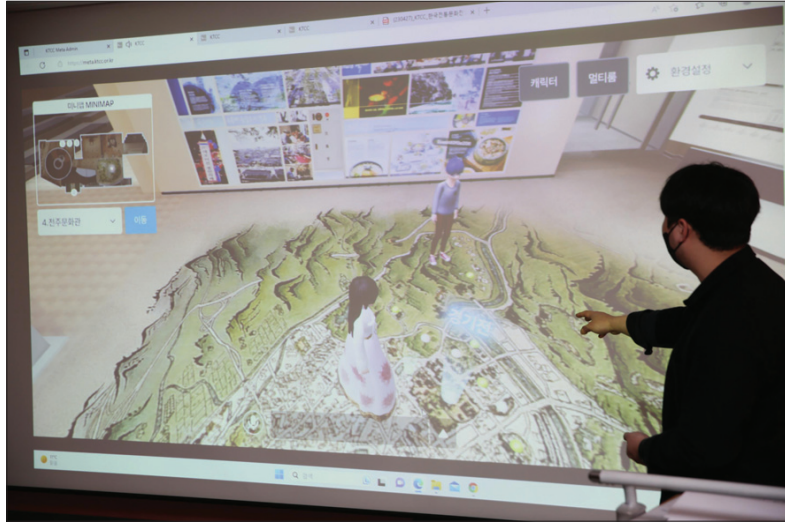
메타버스를 3차원 가상 세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가상의 인물이나 분신을 통해 서로 교류하고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세계를 말한다.

전주시와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웹3.0 전환 디지털 문화체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메타버스 전주'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

'메타버스 전주'는 시와 전당이 자체 플랫폼으로 구축했으며,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열리는 한국전통문화전당 실내와 실외의 모습을 실제와 같이 3차원 디지털 가상공간으로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또, 전주문화관과 전시실, 놀이체험관, 소통공간 등에 재미와 체험 요소를 가미한 콘텐츠로 채웠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의 3D 공간구현은 사실적인 전당의 외관과 더불어 △전통놀이와 사운드스케이프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광장 △전주의 역사 관광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인 전주문화관 △현장 전시와 동일한 초실감 전시 공간으로 구현돼 온·오프라인 동시 전시가 가능한 상시 및 기획전시실 △한지와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한지산업지원센터 △비대면 교류를 위한 회의실과 세미나실 등으로 채웠다.

특히 메타전당에 구축된 기획전시실에서는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연 10회 정도 진행되는 현장 전시와 동일하게 작품 전시가 가능하게 구현했으며, 작품별 작가의 음성설명 청취와 방명록 기록 등 작가의 작품에 대한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 전시관의 장점을 부각했다. 또, 아카이브를 통한 지난 기



전주시와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웹3.0 전환 디지털 문화체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메타버스 전주' 플랫폼을 구축했다.

획전 관람 기능도 갖고 있다. 아카이브란 소장품이나 자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한데 모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손쉽게 검색하기 위해 모아둔 파일을 말한다.

시는 2일부터 한국전통문화전당 누리집에 별도의 설치 절차 없이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메타전당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시는 메타전당 서비스와 함께 향후 구축될 전주한옥마을 및 전주-익산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계해 과거 통합플랫폼에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도영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앞으

로 메타버스를 통해 전통문화전당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꾸준히 모색하고, 온·오프라인이 융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심규문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한국전통문화전당을 디지털로 경험할 기회가 생겼다"면서 "문화체험의 디지털융합을 통한 차세대 인터넷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더욱더 다양한 디지털 기반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기자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展, 전주'

전주역사박물관, 후백제·고려 옛 모습 엿볼 수 있는 전시 개최

후백제의 왕도였던 전주와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의 옛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후백제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고려 건국 이전 후백제의 수도였던 전주에 대한 이야기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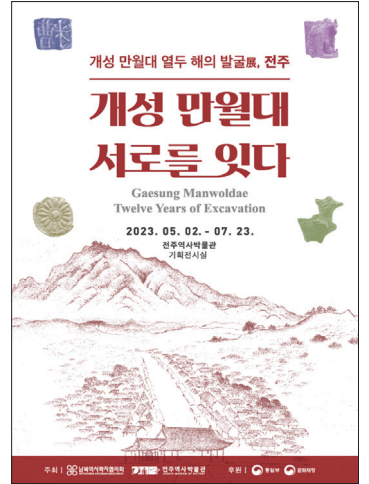
전주역사박물관은 2일부터 7월 23일까지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展, 전주'를 주제로 남북공동으로 진행한 '고려 궁궐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의 성과와 후백제 수도 전주의 모습을 담은 기획전시를 진행한다.

전주역사박물관과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통일부와 문화재청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전국 순회전시 일환으로 기획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남북이 함께한 만월대 발굴 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그간 발굴조사한 고려 궁궐터의 모습,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재현된 만월대 출토 유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 궁궐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는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진행됐으며, 발굴조사를 통해 40여 채의 건물터와 금속화자 1점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와전 및 도자기 등 1만 7900여 점의 유물이 수습됐다.

오는 5월 30일에는 전시연계 교육 프로그램



램으로 이상준 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을 초청해 '개성의 역사와 개성역사유적지구'를 주제로 한 학술강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역사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유물과 후백제 관련 유물을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욱기기자

익산 백제왕궁박물관, 특별 역사·체험 교실 운영

5월 가정의 달 맞아 초등학교 3~6학년 동반 가족 대상 진행

익산 백제왕궁박물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역사·체험교육프로그램 '안녕? 난 반짝반짝 수부!'를 운영한다.

'안녕? 난 반짝반짝 수부!'는 익산이 백제시대 왕도였음을 상징하는 백제왕궁(왕궁리유적) 출토 유물인 '수부(首府)' 도장을 찍은 기와에 대한 체험활동으로 이달 5·13·20일 운영한다.

어린이가 '수부' 도장을 찍은 기와를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모바일 러닝△'수부' 캐릭터 스트링 아트(String Art) 만들기 등 가족 구성원마다 역할이 주어져 소통

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 대상은 초등학교 3~6학년 동반 가족으로, 교육 참가비는 무료다. 교육 신청은 1일 10시부터 네이버 폼(<https://naver.me/svMblbHVD>)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 온 가족이 함께 백제왕궁박물관에 모여 지역에 역사를 배우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백제왕궁박물관 누리집(<https://www.iksan.go.kr/wg/>)을 확인하고 기타 문의는 전화(063-859-4798)로 하면 된다.

/익산=이재춘기자

꿈의댄스팀 '군산' 단원 모집

군산시는 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며 군산시민예술촌이 운영하는 '2023 꿈의댄스팀 '군산''의 참여단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춤을 통해 아동들의 가치관과 미래역량 발달을 지원하는 본 사업은 몸으로 사고하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단원 모집 기간은 2일~13일이며 접수방법은 군산시민예술촌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입단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 후 이메일(gsartzone@hanmail.net)로 전송하면 된다. 단, 신청순 30명(1~3학년 15명, 4~6학년 15명) 접수이며 본 사업의 특성상 모집인원의 50% 이상을 취약계층아동으로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기자

"부안청자박물관으로 놀러 오세요"

관람객 유치·부안마실축제 알리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 홍보 나서

부안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안청자박물관이 관람객 유치와 부안마실축제 홍보를 위해 대대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에 따라 부안청자박물관은 본격적인 야외 활동 시즌을 앞두고 부안군 일원에 있는 관광지 및 대형숙박시설은 물론 경기도 이천, 여주 도자기 축제장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러 행사장 및 숙박시설에 마실축제와 박물관 홍보 리플렛 비치와 함께 업소 관계자들에게 박물관 관람 체험 및 마실축제 등을 설명하여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5월에는 전국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등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보고 즐기는 2023년 공예주간 행사가 부안청자박물관에서 개최되어 관람료할인, 청자상품할인, 직거래 농산물 할인 등 다양한 혜택과 불거리를 제공하고 명품청자 상설전시를 통해 관람객에게 휴과 불

의 조화로 만들어진 고려시대 도자문화를 감상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자박물관 최동현 팀장은 "이번 발로 뛰는 적극적인 현장홍보를 통해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부안문화관광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킬 것이며 더 나아가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각급학교 수학여행단 유치에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일요일(4.30.)에 변산해수욕장에서 열린 부안마라톤대회에서 부안청자가 인쇄된 생수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하여 큰 호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안청자를 홍보하는데도 일조를 하였다. 특히 광주에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A씨는 "청자가 그려진 생수를 먹으니 지치지 않고 더 잘 뛸 수 있었다"고 했다.

부안청자박물관은 박물관 야외광장 나무의자 도색, 잔디 식재 등 주변 환경정비에도 힘쓰는 등 늘어나는 방문객을 맞이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